

2월 20일 사회정의의날 (World Day of Social Justice)

장발장은 왜 빵을
훔쳤을까?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
그에게 **19년의 노역**이 내려졌다.



“너는 영원한 246이”

가석방으로 풀려 났지만, 이미 죄수로 낙인 찍혀
새로운 삶을 꿈 꿀 수조차 없었다.
그는 영원한 죄수였다.

“그런데 왜 장발장은 빵을 훔쳐야 했을까”

장발장이 살았던 시대는 혼란 그 자체였다.

끝도 없이 치솟는 물가에 사람들은 배를 채울 수 없었고, 길거리는 부랑자들로 가득했다.

낭만의 도시 파리는 '굶주림의 도시'가 됐다.



물가는 검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빵 한 조각 사기조차 어려워지자 장발장은 결국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의 가치는 굶주림 앞에서 희미해져만 갔다.

오늘날,

장발장이 살았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2011년, 이탈리아 북부에 살던 로만 오스트리아 코프는 슈퍼마켓에서 5,000원 가량의 치즈와 소시지를 훔치다 경찰에 체포됐다.



명백한 절도죄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0유로를
내야 했지만, 최종 판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였던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

”

굶주린 자가 음식을 훔친 것은 죄가 아니며
재산권보다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보여준 이탈리아 대법원.

만약 장발장이 **우리나라**에서 빵을 훔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배가 고프는 한 남자는 불 꺼진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쳤다. 다른 이는 굶주림에 지쳐 남의 배추밭에 들어가 배추 2포기를 뽑았다.

이 둘은 모두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이들의 형량이 이토록 가혹했던 이유는 상습
절도를 저지른 사람을 중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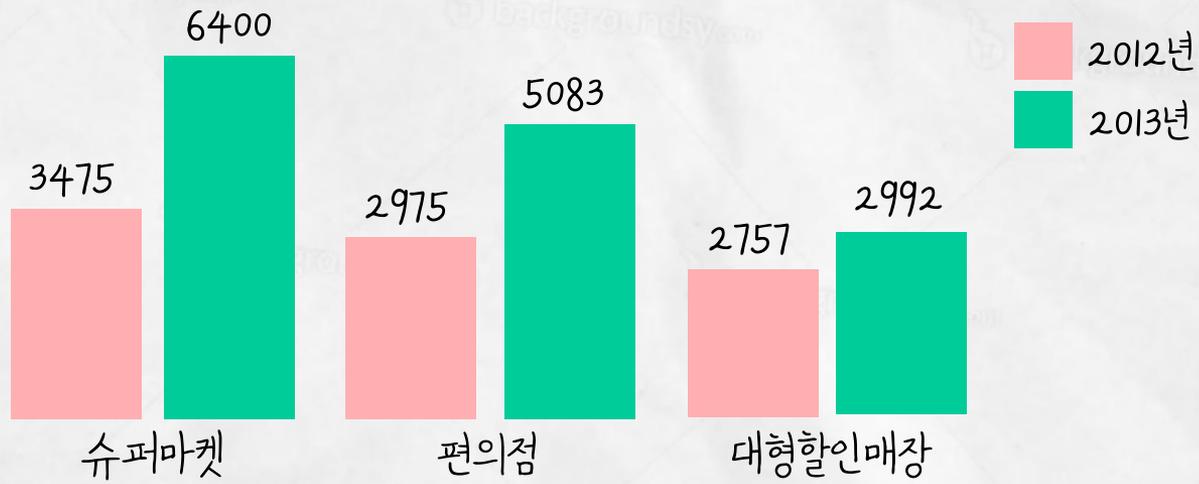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가혹하다 하여
'장발장 법'으로 불렸다.

2015년,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35년 만에야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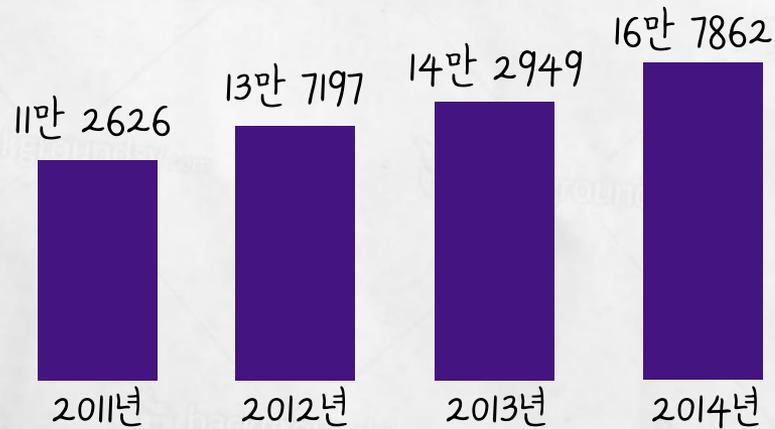
하지만 가중처벌이 사라졌을 뿐,
형법 329조에 따라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계속된 **취업난**과 **경기 불황**으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우리나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까?

생필품 절도



100만원 이하 소형절도



“ 돈이 빼앗아간 자유를 찾아 드립니다.

이들을 위해 시민들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장발장 은행**을 만들었다.

생계형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수금권자인 분들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는 은행으로 시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장발장들만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현대판 장발장을 막기 위해,
경찰서에 **경미범죄위원회**를 열어 생계형 범죄일
경우 사안에 따라 훈방조치로 끝내도록
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쯤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
정의란 무엇인가?
”

선처와 지원이 늘었다고 제 2의 장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데 필요한 **일자리**와 **정당한 임금**이다.

“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

세계시민교육 보니다

© Bon Idea To Action, Bonita

www.ibonita.org

보니다 소식이 궁금하다면
보니다 공식 페이스북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facebook.com/ibonita2016